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가정요인을 중심으로

주 지 선¹⁾ · 이 성 원²⁾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3,612명의 자료를 토대로 행복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분위기로 분류하였으며,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분류하여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3 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교사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분위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10.5%이었다. 반면에 수업참여태도와 소득수준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입시 및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써, 이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학교와 가정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고3, 행복감, 교사, 학교요인, 가정요인

I. 서론

2019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주관적 행복지수(94.7점)보다 6점 가량 낮아진 것으로, 2017년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한겨레, 2019.05.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업 경쟁의 분위기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초·중·고교 남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불행 경험을 연구한 신현숙(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를 불행의 주요 이유라고 하였으며 남녀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소위 수험생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오선희, 2011). 고3 시기는 미래의 직업과도 관련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연구교수

2) 한양대학교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상담교수

되는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높은 학습수준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서 위염, 장염, 흡연이나 음주 등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배상숙, 2012; 정철상, 2011).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입시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시험 불안, 정신건강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현주, 1996; 박증현, 2010, 서신자, 정민숙, 2013; 송종화, 2006; 신장환, 2004; 정철상, 2011). 하지만 고3 시기의 어려움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긍정적 자원들에 대한 탐색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경험이 대학생이 된 후의 대학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대학생으로서의 행복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배희분, 서주현, 김효선, 2017). 즉 동일한 고3 시기이지만 학교와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과 조력을 받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훗날 대학 시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3 시기의 생활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긍정적 자원을 밝히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행복은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2; 김희중, 2007).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한 삶, 주관적 행복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성은모, 김균희, 2013; 허승연, 2009; Diener, 1984; Diener & Fujita, 1995; Ryff, 1989). 성은모 등(2013)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고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을 협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3을 대상으로 행복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 연구는 미비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한 연구(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를 참고하자면,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이 대학생 및 장년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행복지수가 낮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한다(김신영, 백혜정, 2008). 또한 행복과 연령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연령대별로 행복이 다를 수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한민 외, 2012; Margolis & Myrskylä, 2012). 이와 같이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중 특히 고3의 행복을 실증적으로 다루며 관련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 중 특히 고3 시기의 행복의 수준을 확인하고 고3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송정화,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 Diener, et al., 1995;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반면에 행복감과 관련된 청소년의 환경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루어졌으나 환경요인은 결국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제공

하므로 간과할 수 없다(성은모 외, 2013). 특히 고3이라는 시기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고3이라는 특수성과 사회 제도 및 문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속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주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3 학생들의 행복을 조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과 개입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3 시기의 주요 환경 중 하나는 학교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에게 학교와 관련된 요인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주며(문은식, 2005, Cohen & Wills, 1985),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된다(김현주, 1996). 한편 이러한 교사의 지지가 고3 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송종화, 2006)에서는 고3의 부정적인 경험을 특별히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들은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이 고3 시기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상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고3 시기에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고3 담임교사에 대해 진학 및 취업지도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김연정(2014)은 일반계고 3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은 다른 학년과 다른 교사의 역할과 달리,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주기 기대받고 있기에 담임교사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성화고 3학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고3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도 및 인성교육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은희,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특히 고3 시기에 경험하는 교사로부터의 영향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나 수업에서의 분위기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업참여태도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성실한 태도로,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상호지속적으로 관련성을 지닌다(이수란, 손영우, 2013; 전창완, 2014).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나타나는 또래 친구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나 학습을 저해하는 환경요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에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보다 학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요인 중 교사 관련 요인들과 수업 관련 요인들을 선정하여 행복감과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3 시기에 중요한 또 다른 환경요인은 가정이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애정과 가치감을 확인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Kostecky, Lempers, 1998), 특히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고3 학생들에게 부모와의 대화와 같은 심

리·정서적 측면, 함께하는 여가활동과 같은 실제적 측면,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 지원 측면 등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3의 가정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의 발생이 증가하며, 가출이나 자살 충동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현주, 1996; 송종화, 2006), 고3 시기에 경험한 부모의 보호와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 자녀의 행복감에 여전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배희분 외, 2017). 뿐만 아니라 이은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고3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의 지원이라면 물리적 지원 혹은 금전적 지원은 가시적인 측면의 지원이다(배희분 외, 2017). 가정의 소득수준은 이러한 물리적 지원의 가능범위를 내포하고 있으며 물리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구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입시와 사회진출을 앞두고 높은 학습수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를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답한 자료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고3의 행복감과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학교 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분위기로 분류하였으며,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3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고3 학생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고3의 행복감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되어왔으며,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고 자신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의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로 정의(Kraut, 1979)하였고, 이후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로 사용하면서 행복을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된다고 보았고(원두리, 김교현, 2006; Ryan & Deci, 2001),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쓰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Seligman(2002)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으로 보고,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대표 강점을 잘 찾아내고 계발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일에 몰입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한 삶, 주관적 행복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며 연구되어 왔다(이수정, 안신호, 2005).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표준국어대사전)이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는 앞서 말한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되는 정의이다. 성은모 등(2013)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고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을 협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있어 행복감은 유사 용어들보다는 좁은 의미의 심리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추상적인 요인인 행복을 안정적으로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분이 변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기분이나 안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다(Magnus & Diener, 1991). 이런 전체 하에 이러한 전제하에 사용된 행복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는 단일문항 척도, 안면측정법, 두 문항의 척도, 주관적 행복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 척도, 옥스퍼드 행복 척도, 사회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척도 등이 있다(허승연, 2009). Campbell(1976)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의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정의한 행복감의 개념을 볼 때 Campbell(1976)의 질문 문항을 사용해도 행복감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유전이 50%, 외부적 환경(나이, 성별, 수입, 교육수준, 사회계층, 가족 및 자녀,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 등)이 10%, 개인의 의지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의지적 활동이 40%라고 보고한 연구(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를 통해, 우리가 유전 외에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40~50%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고(송정화, 2011; 전미경 외, 2009; 허승연, 2009; Diener, et al., 1995; Lyubomirsky, et al., 2005), 청소년의 환경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성은모 외,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개인요인이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김애경, 2003; 김지영, 이형실, 2010; 이미

리, 2005; 이숙영, 2012; 정병삼, 2010)을 감안한다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환경체계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 학교 관련 요인이나 가정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어느 시기보다도 고3에게 있어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교사와 담임교사, 주변 친구들, 수업시간 등의 요인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불어 고3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은 부모이기에, 부모의 심리적, 실제적, 물질적 지원과 같은 가정 관련 요인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고3의 행복감과 학교 관련 요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 및 건강행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김영아, 2000), 우울, 자살 등의 정신적 장애나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김현주, 1996),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심리적-사회적 적응능력 등을 높여준다(이은희, 2009). 특히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문은식, 2005; Cohen, et al., 1985)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6)가 있다. 이처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에게 교사는 부모보다도 대면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과 지지,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롤모델로서 사회적 측면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교사들과 정서적·심리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인생의 선배이자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교사에게 호감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교사 또한 학생 자신을 잘 이해해 주고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사의 지지가 고3 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송종화, 2006)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3 시기에 학업과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은 바로 담임교사이다. 일반계고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김연정, 2014)에서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이 현재의 성적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그러기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특성화고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희, 2015)에서는 고3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도 및 인성교육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담임교사는 고3 학생들이 학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업을 촉진하며, 의욕을 북돋워 주고 독려함으로써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고3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 수행에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학교 관련 요인 중 교사 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해 학생 개개인이 수업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하는지와 관련된 수업참여태도는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이수란 외, 2013), 수업 태도와 학업 성적의 선순환 관계는 뚜렷하다는 연구결과(전창완, 2014)가 있다. 즉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은 이후 더욱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영남, 2008;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는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는 특성상 또래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모습이나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고3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학습 태도, 학습을 저해하는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습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지지, 학습의 과정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담임교사의 학습에 대한 관여, 개개인이 수업에 참여할 때 보이는 태도, 친구들로 인해 형성되는 수업에서의 분위기 등의 학교 관련 요인은 고3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3의 행복감과 가정 관련 요인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는 인생 초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까지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부모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한다(정옥분, 2006). 더 나아가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 가치감의 확인,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Kostecky, et al., 1998).

부모와 자녀의 대화 정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박지영, 2010; 장혜주, 임지영, 2013; Konishik & Hymel, 2009),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송미령, 안혜영, 김은경, 2002). 또한 고3 시절 부모가 보이는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 자녀의 행복감에 여전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유지되었다(배희분 외, 2017).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대화가 청소년기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해가고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승원, 2000; 김여진, 2006). 그러나 청소년

년 후기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대화가 청소년들의 삶에 질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의사소통은 하고 자녀가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기쁨, 만족,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대화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선명숙, 2001; Diener, 1984).

부모와의 여가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 갈등, 좌절감,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고3의 경우 여가생활이 부족할수록 우울 및 불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송중화, 2006), 지속적으로 여가시간에 신체활동에 참여할수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게 된다(문병일, 2007; 하지연, 조현익, 소영호, 2011). 즉 여가활동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충제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영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도 한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고3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의 대화와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 부모와의 여가활동과 같은 실제적 측면,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 측면 등의 가정 관련 요인은 고3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2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 10,558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총 3,61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이 1,820명(50.4%), 여학생이 1,792명(49.6%)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가 2,038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등학교 762명(21.1%), 마이스터고등학교 310명(8.6%), 자율고등학교 207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820	50.4
	여학생	1,792	49.6
	계	3,612	100
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2,038	56.4
	자율고등학교	207	5.7
	특성화고등학교	762	21.1
	과학고등학교	48	1.3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83	2.3
	예술고등학교	86	2.4
	체육고등학교	78	2.2
	마이스터고등학교	310	8.6
	계	3,612	100

2. 변수 설명

1) 행복감

행복감은 ‘당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11점 Likert 척도(1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1점=매우 행복했다)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분위기로 구성되었다.

(1)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는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지’, ‘선생님이 나의 진로와 적성에 관심 가져주는지’ 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담임교사의 학습관여는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는지’, ‘담임선생님은 정기 고사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에 들도록 강조하는지’, ‘담임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예습, 복습을 다 해오도록 강조하는지’

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답답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3) 수업참여태도

수업참여태도는 ‘수업시간의 집중하는지’,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지’,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지’,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지’,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지’ 등과 같이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수업시간에 성실한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4) 수업분위기

수업분위기는 ‘수업시간 중 잠을 자는 학생이 많은지’, ‘다른 공부 하는 학생이 많은지’, ‘떠드는 학생이 많은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많은지’ 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긍정 문항으로 해석하기 위해 역산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3) 가정요인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구성되었다.

(1)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는 5가지 대화 내용(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부모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빈도는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1년에 1~2회, 3점=한 학기에 1~2회, 4점=한 달에 1~2회, 5점=1주일에 1~2회)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2) 부모와의 여가활동

부모와의 여가활동은 여가 내용(외식, 영화·연극·뮤지컬 등, 박물관·미술관·음악회 등, 여행·등산·낚시 등, 운동)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부모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빈도는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월 1회 정도, 3점=주 1~2회 정도, 4점=주 3~4회 정도, 5점=거의 매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여가활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3)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부의 월평균 소득과 모의 월평균 소득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00만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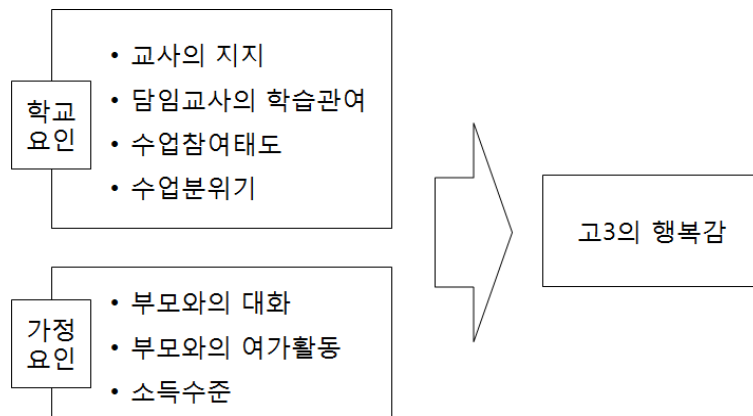
(1점=100만원 미만, 2점=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0점=900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11점=1,000만원 이상)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산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 수	문항 수	척 도
종속변수	행복감	1문항	1~11점 척도
학교요인	교사의 지지	4문항	1~5점 척도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4문항	1~5점 척도
	수업참여태도	5문항	1~5점 척도
	수업분위기	4문항	1~5점 척도
가정요인	부모와의 대화	5문항	1~5점 척도
	부모와의 여가활동	5문항	1~5점 척도
	소득수준	2문항	1~11점 척도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및 가정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고3의 행복감 및 관련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각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고3의 행복감은 한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서 행복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3의 행복감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예측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주요 요인별 기술통계

고3의 행복감, 학교요인 및 가정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3의 행복감은 11점 만점에 7.7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중에서는 교사의 지지(M=3.86)가 가장 높았고, 수업참여태도(M=3.20), 담임교사의 학습관여(M=3.13), 수업분위기(M=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대화(M=3.03)가 부모와의 여가활동(M=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평균 7.63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감		7.73	2.06	1	11
학교요인	교사의 지지	3.86	0.77	1.0	5.0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3.13	0.75	1.0	5.0
	수업참여태도	3.20	0.74	1.0	5.0
	수업분위기	3.35	0.72	1.0	5.0
가정요인	부모와의 대화	3.03	1.01	1.0	5.0
	부모와의 여가활동	2.46	0.78	1.0	5.0
	소득수준	7.63	3.08	2	22

2. 주요 요인간 상관관계

주요 요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계수인 부모와의 대화와 부모와의 여가활동이 .417로 .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어느 요인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요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행복감은 모든 주요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 요인 중에서는 교사의 지지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r=.270$), 가정 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대화($r=.171$), 부모와의 여가활동($r=.156$) 순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r=.056$)이나 담임교사의 학습관여($r=.059$)는 고3의 행복감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4〉 주요 요인간의 상관관계

요 인	1	2	3	4	5	6	7	8
1. 행복감	1							
2. 교사의 지지	.270**	1						
3.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059**	.072**	1					
4. 수업참여태도	.113**	.314**	.224**	1				
5. 수업분위기	.100**	.202**	.006	.103**	1			
6. 부모와의 대화	.171**	.124**	-.066**	.141**	-.008	1		
7. 부모와의 여가활동	.156**	.073**	-.034*	.151**	.027	.417**	1	
8. 소득수준	.056**	.032	.034*	.074**	-.002	.102**	.163**	1

* $p < .05$, ** $p < .01$

3.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가정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교사의 지지 요인이 고3의 행복감에 대해 7.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지지에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분위기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고3의 행복감에 대해 10.5%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3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은 베타 값을 기준으로 볼 때 교사의 지지(Beta=.236, $p < .001$), 부모와의 대화(Beta=.106, $p < .001$), 부모와의 여가활동(Beta=.095, $p < .001$), 담임교사의 학습관여(Beta=.052, $p < .01$), 수업분위기(Beta=.050, $p < .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요인 중 수업 성실도와 가정요인 중 경제 수준은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3 행복감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모 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F	B	β	t
1	교사의 지지	.270	.073	.073	284.034	.726	.270	16.853***
2	교사의 지지	.304	.092	.092	183.196	.679	.253	15.816***
	부모와의 대화					.285	.140	8.742***
3	교사의 지지	.316	.100	.099	133.211	.673	.251	15.743***
	부모와의 대화					.204	.100	5.728***
	부모와의 여가활동					.253	.096	5.502***
4	교사의 지지	.320	.102	.101	102.818	.662	.246	15.449***
	부모와의 대화					.212	.104	5.935***
	부모와의 여가활동					.254	.096	5.537***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142	.052	3.252***

모 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F	B	β	t
교사의 지지					.635	.236	14.511***
부모와의 대화					.217	.106	6.072***
5 부모와의 여가활동	.324	.105	.103	84.375	.250	.095	5.452***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143	.052	3.289**
수업분위기					.144	.050	3.102**

** α .01, *** α .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KEEP)를 활용하여 이들의 행복감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3,6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1,820명(50.4%), 여학생은 1,792명(49.6%)이었다. 독립변수는 학교요인과 가정요인으로 나누고 관련 요인을 선정하였다. 학교 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 분위기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요 요인들의 평균 및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행복감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3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교사의 지지가 고3의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문은식, 2005; Cohen, et al., 1985)과 일치한다. 중1부터 고2까지의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사-학생 관계점수가 긍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매년 유의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성, 신탉수, 허유성, 2012). 이러한 결과는 고3까지 측정되지는 못하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적, 정서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해지므로 고3 시기에도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6)와 같이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정서적 교감 그 자체로 고3 시기의 일상적 행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교사의 지지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 및 부모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분위기가 고3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과 대화를 보일 경우 관계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결과(박중현, 2010)가 고3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여가 시간에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문병일, 2007; 하지연 외, 2011)와 일치한다. 고3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충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임교사의 학습관여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고3 시기에 실질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인 담임교사가 학업에 대해 강조하고, 의욕을 북돋워 주며, 독려하는 등 학습 수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년과 다른 교사의 역할과 달리, 고3 담임교사로부터 받는 영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선행연구(김연정, 2014; 김은희, 2015) 결과를 확장하여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업 분위기도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환경적 요인으로써 교실 수업상황과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업참여태도와 소득수준은 고3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업시간에 보이는 성실한 학습의 태도가 주로 학업성취 및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수란 외, 2013; 전창완, 2014)과 달리 행복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3 시기의 특성상 과중한 학업을 전념함으로써 행복감 즉 즐거움과 재미에 대해서는 느끼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이 보장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수정 외, 2005). 하지만 본 연구는 소득수준을 부모의 소득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고3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달리 물리적 지원으로써의 소득수준은 사교육이나 주거지 이동 등을 포함한 가시적 지원으로 행해지므로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에 결과는 다소 상반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학입시 및 사회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원으로 행복감을 확인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3 시기가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아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3 시기 행복감에 기반이 되는 환경요인을 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1979)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환경요인과 가정환경요인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들을 교사, 수업, 부모, 소득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3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고3 시기의 행복감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 교사와 부모의 실제적인 조력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3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주력하면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습에 대한 관여와 수업 태도에 대한 지도보다도 오히려 친밀감과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 다양하고 건설적인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3 부모들은 그 시기에 부모 자신도 고3 생활을 겪는다는 말처럼, 자녀로 인해 함께 불안함을 겪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특히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 중심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므로 응답 수는 적지 않으나 일부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득수준 미응답 사례가 다수 소실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참고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으로 행복감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행복감의 점수를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시기의 특성상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고3 시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조력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영남(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11-131.
- 구재신, 서은국(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35-50.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회지**, 26(2), 429-459.
- 김승원(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백혜정(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여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2014).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은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이형실(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현주(1996). 수험생의 자살 및 가출 충동 관련요인: 성적, 자기평가, 부모의 지원. **가족과 문화**, 1, 127-128.
- 문병일(2007). 규칙적인 스포츠참여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2), 123-134
- 문은식(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증현(2010). **고3 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입시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0). **남녀중학생의 스트레스, 분노, 대처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상숙(2012).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인지한 위염 및 장염 관련요인: 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 668-677.
- 배희분, 서주현, 김효선(2017). 고3 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3(6), 229-249.
- 서신자, 정민숙(2013).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62-274.

- 선명숙(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모, 김균희(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 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송미령, 안혜영, 김은경(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어머니·자녀의사소통과 삶의 질간의 관계. **아동 간호학회지**, 8(2), 141-151.
- 송정화(2011). **다층 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종화(2006).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낙관성 및 비관성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장환(2004).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학습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15). 초, 중, 고등학생의 일상적 행복 및 불행 경험. **교육연구**, 38, 1-28.
- 오선희(2011).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모습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현상해석학 적 교육연구**, 8(1), 29-55.
- 원두리, 김교현(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 윤미경(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수란, 손영우(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수정, 안신호(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14
- 이숙영(2012).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117-145.
- 이은희(2003). 남녀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그 결정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52-76.
- 장혜주, 임지영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와의 대화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분노표현 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5(1), 17-35.
- 전미경, 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전창완(2014).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수업 태도와 학업 성적의 상호 관계. **교사교육연구**, 53(1), 204-219.
- 정병삼(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옥분(200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철상(2011). 고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9), 1-18.
-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하지연, 조현익, 소영호(2011). 고등학생들의 운동참가 여부에 따른 신체상과 신체적 매력, 자아존중감, 무망감우울 및 자살 생각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843-858.
- 한겨레(2019.05.14.). **아이들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언제쯤 오를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814.html#csidx0ad3b2c91333cd3b57a15e49eddc07f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 Konishik, C., & Hymel, S. (2009). Bullying and stress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3), 333-356.
- Kostelecky, K. L., & Lempers, J. D. (1998). Stress, family social support, distress and well-being in high school seniors.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7(2), 125-145.
- Kraut, R. (1979).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hilosophical Review*, 87, 167-196.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Magnus, K., & Diener, E. (1991).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63nd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김인자역(2006).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 Abstract ❖

The Influence of School' factor & Family factor for their High School Senior Student on Happiness

Ju Ji-Sun(Korea University), Lee Sung-Won(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school's factors & family's factors for high school senior students influenced on their happines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KEEP), and performed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school factors are classified as teacher support, study involvement of teacher in charge,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class atmosphere. Also family factors are classified as conversation with parents, leisure with parents and economic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 support was a positive predictor of high school senior students' happiness. Second, also happiness was predicted by conversation with parents, leisure with parents, study involvement of teacher in charge and class atmosphere. Thir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economic level did not influence on high school senior students' happin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high school senior student, happiness, school factors, family factors.